

2023. 5. 22.(월) 조간용

이 보도자료는 2023년 5월 21일 오전 11: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



보도 자료

담당부서 :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스마트건강과장	이 응 창	2133-7560
---------	-------	-----------

건강환경지원팀장	정 상 옥	2133-7585
----------	-------	-----------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5매

담 당 자	김 희 정	2133-7586
-------	-------	-----------

서울시, 첫 '장애친화 산부인과' 문 연다!

- 중증 여성장애인이 이용하기 쉽게 전문인력 365일 24시간 원스톱 지원
-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장애편의시설, 이동동선 등 개보수 완료 5.22.개소
- '장애친화 산부인과' 안전한 임신·출산 환경, 신생아 관리, 부인과 진료 등 통합서비스
- 시, 올해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에 추가 개소 추진, 총 3개소 운영 목표

#1. 중증 지체장애인 A씨는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체중을 측정해야 했는데, 일반 체중계에 남편이 자신을 안고 올라서 체중을 측정한 후, 남편 체중을 뺄 수밖에 없었다. 진찰실과 검사실은 입구가 좁아 휠체어가 접근할 수 없어, 보호자가 안아서 옮겨 주었고, 탈의실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어 불편을 겪었다.

#2. 시각장애인 B씨는 첫째 아이 출산 시 주변인들의 추천으로 한 의료기관을 이용했으나, 시설이 노후되어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어렵고 병원에서 상시 보호자 동반을 요구하는 등 장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산부인과 진료는 여성의 임신·출산 외에도 평생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강 항목 중의 하나다. 하지만 여성장애인은 경제적 부담, 임신·출산의 정보 부족, 의료기관 접근의 어려움, 종사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시의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 서울시는 여성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임신·출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료 인력, 장비시설, 수어 통역서비스 등 맞춤형 의료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5월 22일 개소한다.



-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해 ‘서울대병원’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서울대병원 본관 3층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했다.
 - 시는 2021년 11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서울대병원을 선정했다. 시설비 3억5천만 원을 투입해 휠체어 이동, 회전공간이 확보된 진료·분만·수술실 등 시설을 기반으로 휠체어 체중계, 이동식 전동리프트, 흉부 X-ray(침대타입), 전동침대 등 여성장애인 맞춤형 장비(15종 29대)를 갖췄다.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인건비 및 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지원한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적절한 산과 및 부인과 진료를 제공해 여성장애인과 태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장애인 건강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여성장애인에게 지속적인 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이번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임신·출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산부인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마취통증학의학과 전문의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외래진료실, 분만장, 병동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진료 전 과정에서 24시간 공백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이곳저곳 옮기지 않고도 산부인과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층에서 모두 받을 수 있다.

- 또한 ‘태아센터’와 ‘희귀 유전질환 센터’를 운영해 태아에게 유전될 수 있는 장애, 선천성 기형을 포함한 태아 이상 질환이 의심될 경우 다학제적인 진료가 이뤄지며 장애 유형에 따라 정형외과, 내과, 외과 등 적절한 연계 진료도 가능하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화(02-2072-3338), 또는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누리집(<https://www.snuh.org/reservation/meddept/MC088/mainIntro.do>)에서 상담 및 예약을 할 수 있다.
- 서울시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이대목동병원’과 ‘성애병원’을 지정, 준비 중으로 올해 말까지 총 3개소 개관을 목표로 추진한다.
-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다중 구조 차별 속에서 일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많아, 전문기관에서 적절한 시기에 의료지원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 ‘장애친화 산부인과’에서 안전하게 진료받고,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요

2.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위치도

□ 사업 개요

- (추진배경)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진료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고비용·저수익 구조를 고려한 선제적 지원 필요
 - (목적) 여성장애인이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 (주요내용)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생애주기별 여성질환 의료서비스 지원
 - 의료종사자 교육, 보조 인력 배치(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으로 심리적 접근성 확대
 - 장애 친화적인 필수 주요 시설* 및 편의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 여성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보장
- * 외래진료실, 처치실, 진통실, 분만/수술실, 회복실, 입원실, 수유실 등

○ 지정기준

지정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시설 기준	• 외래진료실, 처치실, 진통실, 분만/수술실, 회복실, 입원실, 수유실 등 필수 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2]' 에 따른 편의시설 기준* 충족 또는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취득 * 세부기준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름
장비 기준	• 휠체어체중계, 진찰대 등 10개 필수 장비(선정 후 구매)
인력 기준	• 전문의(산부인과 2명, 소아청소년과 1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 장애친화 산부인과 코디네이터 • 간호사 6명, 직종별(임상병리사, 행정, 방사선, 원무, 약무) 1명
운영 기준	• 편의 제공 필요 내용과 제공 방안 상담 및 합리적 편의 제공 •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웹사이트 운영

□ 장애친화 산부인과 기능

구분	세 부 내 용
여성장애인 의 치료 등 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역 내 여성장애인의 최종 진료 제공 ○ 합병증이 수반된 장애인의 분만 등 모자의료 관련 고도의 의료행위 수행 ○ 권역 내 여성장애인 진료의 거점 역할 수행
진료 표준화와 질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산부인과 교육 및 진료 시 참고를 위한 자료 개발 수행 ○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행 ○ 진료 및 교육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
여성장애인 진료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진료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 모자의료 및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교육 및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진료에 대한 국내 심포지엄과 세미나 개최 ○ 관할 지역 산부인과 및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소 등을 통한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제공 ○ 지역사회 내 환자 이송 서비스 제공자 교육(타 기관 포함)
여성장애인 평생 건강 관리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임기 전·후, 갱년기, 노년기 등 생애주기별 여성장애인의 부인과 질환으로 인한 산부인과 이용 연계

붙임 2

서울대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위치도

